

# 땅에 대한 오마주... 호나타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발라드 캐년 지역에 포도밭을 사들이고는 프랑스 보르도의 와인전문가들을 모셔왔다. 이 땅에 어떤 포도품종을 심어야 좋을지 의견을 묻기 위해서다. 이윽한 포도 산지는 대부분 석회 토양인 반면 이곳은 모래 토양에 적박했다. 한참을 둘러본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아스파라거스나 심으라고. 좋은 와인이 나오긴 힘들다는 결론이었다.

토양과학을 전공한 천재와인메이커 매트 디즈(Matt Dees)의 의견은 달랐다. 솜씨 좋은 농부는 모래토양을 보면 웃는다는 말이 있다. 매트 디즈가 그랬다. 다루기 까다롭지만 잠재력은 무한한 모래토양이다. 더운 낮과 추운 밤, 적박한 모래토양에서 매트 디즈는 2004년 첫 빈티지부터 주요 와인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는 와인을 만들어냈다.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는 "산타 바바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스타가 탄생했다"며 극찬하기도 했다. 와인너리 이름 호나타 역시 와인이 만들어지는 땅에 대한 오마주를 표현했다. 호나타는 산타 이네즈 원주민의 고어로 당시 이 지역에 심어져있던 키가 큰 오크 나무를 뜻한다.

호나타 포도밭은 고작 80에이커에 불과하다. 생산량 역시 극히 적다. 200 케이스에 불과한 와인도 있다.

'호나타 플로르'는 연간 생산량이 225케이스 안팎이다. 주 품종 소비뇽 블랑에 세미용을 보르도 스타일로 섞었다. 소비뇽 블랑은 한 번에 수확하지



매트 디즈(Matt Dees) 호나타 와인메이커.

않는다. 한 번 포도를 따고 나면 3일 뒤에 다시 수확에 나선다. 같은 소비뇽 블랑이지만 꽃사과부터 잘 익은 망고 맛까지 풍성하게 낼 수 있는 이유다.

탄탄한 힘이 느껴지며, 부서진 돌 등 미네랄 느낌도 분명하다. 라임을 비롯해 파인애플, 구아바의 풍미들이 풍성하면서도 신선한 한 여름의 꽃다발처럼 다가온다. 산타바바라에서 가장 서늘한 지역답게 산미는 감전될 듯 짜릿하다. 실제 산도가 높아 오픈하고 1~2주까지도 마시기 좋다.

'호나타 페닉스'는 멀뚱을 주 품종으로 한 보르도 블렌딩 와인이다. 멀뚱이 제 맛을 낼 수 있는 해에만 만들어진다. 시음했던 2015년 빈티지는 매트 디즈 말을 인용하면 대자연이 모든 것을 가져간 해다. 단위당 포도 수확량이 그어느 때보다 적었다. 모래 토양이라 원래 응축미가 강한데 2015년 빈티지는 특히 두드러졌다. 다크 초콜릿, 민트, 블랙베리와 말린 버섯의 향이 강렬하지만 멀뚱 품종 특유의 벨벳처럼 부드러운 질감이 입안에서 펼쳐진다.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비롯해 소고기나 돼지



(왼쪽부터)호나타 플로르, 호나타 페닉스, 호나타 토도스



미국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발라드 캐년에 위치한 호나타 빈야드 / 나라셀라

고기 중 지방이 많은 부위와 잘 어울린다. 호나타 페닉스 역시 연간 생산량이 500 케이스에 불과하다.

'호나타 토도스'는 호나타가 가지고 있는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다채로운 포도들을 섞어 만들어진다. 토도스(Todos)는 모두(Everyone)를 뜻한다. 시라블 비롯해 카버네 프랑, 뽀띠 베르도, 산지오베제, 뽀띠 시라, 카버네 소비뇽, 비오니에 등 7개의 품종이 섞여 마시기 편한 와인을 만들어냈다. 검은 과실과 꽃향이 스모키하고 달콤한 향신료 풍미와 잘 어울려져 있다. 레드 와인 평균보다 낮은 온도로 마시면 더 맛있다.

/smahn1@metroseoul.co.kr



자료 협조

#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건강까지 살핀다

'경영주 건강 케어 프로그램' 도입 종합검진부터 심리상담까지 지원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경영주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경영주 건강 케어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경영주 건강 케어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새롭게 출범한 가맹점 소통채널 '경영주 편의연구소'을 통해 마련된 복지프로그램이다.

세븐일레븐 '경영주 편의연구소'는 경영주와 본사가 한 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협의체로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가맹점 운영 효율 및 경영주 편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

먼저 세븐일레븐은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제휴를 맺고 전 경영주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기본 검진 외 CT, 초음파 검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16개의 검진 기관에서 경영주 본인은 물론 직계 가족까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영주의 정신 건강을 돕는 전문 심리케어 상담 서비스도 마련했다.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와 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영주의



함태영 세븐일레븐 커뮤니케이션부부장(왼쪽), 한세희 한국건강관리협회 본부장(오른쪽), 경영주 대표가 제휴를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조사 발생 시 심리케어 상담서비스를 통해 전문 심리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븐일레븐은 경영주의 50% 이상이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중요한 40~50대 중장년층인 만큼 이번 건강케어 프로그램이 경영주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태영 세븐일레븐 커뮤니케이션부장은 "세븐일레븐은 가맹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영주 편의연구소를 통해 보다 나은 운영 환경과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 스타벅스 개점 20주년 기념 '별다방 아이스티'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개점 20주년을 맞아 '별다방 아이스티' (사진)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오는 16일부터 음료 2종과 푸드 2종을 출시하는 스타벅스 20주년 기념 프로모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음료 2종은 20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출시된 음료로, 각각 한국의 전통차와 스타벅스의 히든 메뉴를 재해석해 눈길을 끈다.



'별다방 아이스티'는 예전 다방에서 즐겨 마셨던 쌍화차를 모티브로 스타벅스만의 색을 입혀, 한국인에게 익숙한 시원한 수정과 맛을 재현해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백민용 기자

# '달달한 향'에 매끈한 각질제거까지... 민감한 건성 '주목'

## 트렌드 Pick!

### 애경산업 샤워메이트 '아이스크림 바디스크럽'

노출의 계절, 여름이 왔다. 짧아진 옷만큼 신경써야 할 것도 많아지는 시기다.

여름철 연례행사는 바로 해묵은 친구들과의 작별 인사다. 한껏 늘어난 살, 귀찮음을 양분으로 먹고 자란 털 등이 해당한다.

다이어트나 제모 만큼 여름 필수 항목으로 꼽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각질 제거'다. 하얗게 일어난 종아리나 짝짝 갈라진 발 뒷꿈치는 개인의 청결도까지

향 강렬해 익일까지 은은하게 지속 기존 퇴직한 타 제품보다 묽은 제형 제형 부드러워 발뒷꿈치 등엔 미흡 롤링시 자극 적고 촉촉함 남아있어

의심케 할 수 있어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각질 제거도 함부로 했다간 큰 코 다친다. 정확히는 피부가 다친다. 하얀 각질을 없애려다 되레 피부만 별갈게 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부에 따라 스크럽 선택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다.

◆바디 미스트는 가라, 코 찌르는 딸기향 기자가 사용한 제품은 애경산업 샤워메이트의 '아이스크림 바디스크럽' 스킨베리(딸기)다.

제품명처럼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생겼다. 감쪽한 용기, 동봉된 미니스푼, 뚜껑을 열면 확 풍겨오는 단내 때문이다. 편의점 아이스크림 냉동고에 넣어 놓으면, 한 입 먹을 때까지 제품의 정체를 모를 것 같다.



스크럽을 한 후, 육안으로 크게 눈에 띄진 않지만 각질이 제거돼 한층 피부가 부드러워졌다. 오른쪽 사진은 씻어낸 직후로, 발갛게 변하지 않았으며, 촉촉함은 유지했다.

스트로베리 외에 쿠키앤크림, 피스타치오, 망고탱고 등 3가지 향이 더 있다고 하는데, 후기를 찾아보니 스트로베리 만큼이나 다른 향들도 먹음직스럽다고 한다.

스트로베리의 경우, 막대사탕인 슈파츰스 딸기맛 향과 무척 비슷하다. 향이 강렬한 만큼 지속력도 좋다. 자기 전 샤워할 때 사용하면 아침까지 은은하게 향이 코끝을 맴돈다. 따라서, 인위적인 향이나 달콤한 냄새를 싫어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묽고 촉촉하지만 물처럼 흘러내릴 정도의 제형은 아니다. 적당한 퇴직함을 가지고 있으며, 알갱이가 작아 몸에 문지를 때도 따갑지 않다. /김민서 기자

◆따갑진 않지만...강력한 효과는 '글씨' '아이스크림 바디스크럽'은 타 스크럽과 비교해, 사용 직후 효과가 크게 눈에 띄는 편은 아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극이 적어 민감한 건성 피부가 쓰기에 좋을 것 같다.

이 제품의 제형은 육안으로 봐도 묽고 촉촉하다. 퇴직한 타 스크럽제의 제형과는 차이가 있다. 의외인 것은 피부에 발랐을 때 줄줄 흘러내릴 정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촉촉한 제형이라 팔에 시험할 땐 물

없이 톨랑해봤는데, 아프거나 따갑지 않은 수준이었다.

다리에 해본 시험은 보다 만족스러웠다. 모공각화증이 심하지 않은 정도로 있는 편인데, 자극이 덜한 편인지 사용 후 피부가 일어나거나 빨갛게 변하지 않았다.

첫 사용 후 제품 설명을 찾아보니 이 제품에는 캘리포니아산 호두껍질이 함유돼 각질 및 노폐물 흡착을 도와준다. 또, 피부 진정을 돕는 살구씨가 함유돼 자극은 덜하지만 각질은 말끔하게 제거해 준다고 한다.

제품 사용 후, 피부에 촉촉함이 남아 있는 것은 장점 중 하나다. 제품 설명에 따르면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한 3종 보습오일(호호바, 아보카도, 아르간)이 포함돼 있어서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있게 가꾸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다만, 부드러운 제형인지만 발 뒷꿈치나 무릎 등에는 물 없이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제품은 감쪽한 용기 디자인과 달리 300g의 대용량이다. 애경산업의 직영몰인 'AK 뷰티(BEAUTY)'에서 11일 기준 8900원에 판매되고 있어 '가성비'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다. 정가는 1만2900원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